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지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i A, Seong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orm nursing students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s from October 16 to October 23, 2017.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9.0 using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cluded academic self-efficacy($\beta = 0.36$, $p = <.001$), job-seeking stress($\beta = 0.35$, $p = <.001$), major satisfaction at enrollment(satisfaction)($\beta = 0.25$, $p = .020$), grade(4th)($\beta = 0.21$, $p = <.001$), grade(3rd)($\beta = 0.18$, $p = .002$). These factors together explained 29.3%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F = 10.40$, $p <.001$). **Conclusion** :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cademic self-efficacy management strategies and job-seeking stress enhancem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 and that further study should be done on the effects of such program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 efficacy, Behavior, Nurs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대학에 입학과 동시에 간호

사라는 진로가 정해지고 졸업 전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이 확정됨으로 인해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이 미흡할 수 있다[1,2]. 취업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준비행동을 잘 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을 성공한 간호대학

교신저자 : Ji A, Seong / (35408) 333 Boksu-Dong, Seo-Gu, Daejeon, Korea

Tel : +82-10-6419-7382, Fax : +82-42-580-6289, E-mail: kkamsifo@dst.ac.kr

접수일 : 2018.11.19. / 수정일 : 2018.12.5. / 게재확정일 : 2018.12.14.

* 본 논문은 2017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로 수행되었음

생의 경우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 그러나 진로에 대한 고민 부족으로 취업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간호대학생들의 경우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입사한 이후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4].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학습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5],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6]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7,8].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과 및 학업수행에 만족하고[9]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학과 및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동안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하는 것을 돕는다[12].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13,14], 졸업에 가까워지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15]. 이는 대학을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16]. 간호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반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지식을 습득하고, 시야가 넓어지며, 간호관이 확립되는 등의 취업역량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 된다[17]. 즉 간호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지는 반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18].

지금까지 국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18], 회복력[6], 성격유형, 진로의사결정유형[19],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20],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21], 셀프리더십[22]간의 관계를 파악한 것이 대부

분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와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5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크기

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3.1 analysis software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의 방법과 예측변수를 고려하고 medium effect size 0.15, power 0.95로 계산하였을 때 178명이 요구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350부를 배부하였다.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337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17부를 제외한 320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5]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상당히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상당히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α 는 .74~.84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가 .90이었다.

2)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 Cornell Medical Index[CMI]’을 토대로 개발된 Whang[23]의 취업스트레스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아주 그렇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Whang[2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hronbach's α 는 .72~.90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가 .98이었다.

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Kim[12]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다소 그런 편이

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12]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h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가 .93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5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337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17부를 제외한 32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였고, 설문지 배포는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설문지 회수 방법도 직접회수로 이루어졌다.

5.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으며,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폐기함을 알려주었다. 또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유지가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들에게 자필서명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

별은 여학생 294명(91.9%), 남학생 26명(8.1%)이었고, 학년은 1학년 97명(30.3%), 2학년 82명(25.6%), 3학년 70명(21.9%), 4학년 71명(22.2%)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경제상태는 '상' 5명(6.1%), '중' 240명(75.0%), '하' 75명(23.4명)이었고, 건강상태는 '나쁘다' 34명(10.6%), '보통이다' 162명(50.6%), '좋다' 124명(38.8%)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유리' 107명(33.4%), '적성에 맞음' 81명(25.4%), '안정적인 직업' 75명(23.4%) '가치 있는 직업' 57명(17.8%)순이었다. 입학 시 전공 만족도는 '만족' 174명(54.4%), '보통' 119명(37.2%), '불만족' 27명(8.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전공 만족도도 '만족' 190명(59.4%), '보통' 99명(30.9%), '불만족' 31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3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26	8.1
	Female	294	91.9
Grade	1st	97	30.3
	2nd	82	25.6
	3rd	70	21.9
	4th	71	22.2
Economic status	High	5	1.6
	Middle	240	75.0
	Low	75	23.4
Health status	Poor	34	10.6
	Moderate	162	50.6
	Good	124	38.8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	Employment	107	33.4
	Aptitude	81	25.4
	Valuable job	57	17.8
	Stable job	75	23.4
Major satisfaction at enrollment	Dissatisfaction	27	8.4
	Moderate	119	37.2
	Satisfaction	174	54.4
Major satisfaction at present	Dissatisfaction	31	9.7
	Moderate	99	30.9
	Satisfaction	190	59.4

2.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53(± 0.53)점, 취업스트레스는 3점 만점에 1.43(± 0.37)점,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2.32(± 0.5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Table 2. Degree of Academic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320$)

Variables	M \pm SD	Actual rang	Possible range
Academic Self-Efficacy	3.53 \pm 0.53	1.54~6.00	1.00~6.00
Job-seeking Stress	1.43 \pm 0.37	1.00~2.60	1.00~3.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32 \pm 0.56	1.00~4.00	1.00~4.00

Table 3. Academic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0$)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 \pm SD	t/F(p)	M \pm SD	t/F(p)	M \pm SD	t/F(p)
Sex	Male	3.70 \pm 0.53	1.67(.097)	1.31 \pm 0.37	-1.67(.093)	2.42 \pm 0.51	0.96(.337)
	Female	3.52 \pm 0.53		1.44 \pm 0.37		2.31 \pm 0.57	
Grade	1st ^a	3.60 \pm 0.55	2.06(.106)	1.33 \pm 0.34	4.47(.004) *c>a c>b	2.20 \pm 0.56	8.25(<.001) *d>a d>b
	2nd	3.54 \pm 0.58		1.40 \pm 0.38		2.18 \pm 0.57	
	3rd	3.40 \pm 0.47		1.52 \pm 0.40		2.41 \pm 0.60	
	4th	3.56 \pm 0.49		1.48 \pm 0.35		2.55 \pm 0.42	
Economic status	High ^a	3.85 \pm 0.52	2.84(.060)	1.43 \pm 0.33	2.74(.066)	2.49 \pm 0.64	3.25(.040) *b>c
	Middle ^b	3.56 \pm 0.49		1.40 \pm 0.36		2.36 \pm 0.56	
	Low ^c	3.42 \pm 0.64		1.51 \pm 0.42		2.18 \pm 0.54	
Health status	Poor ^a	3.32 \pm 0.48	5.32(.004) *c>a	1.59 \pm 0.42	12.47(<.001) *a>c b>c	2.24 \pm 0.55	0.41(.666)
	Moderate ^b	3.50 \pm 0.50		1.48 \pm 0.39		2.34 \pm 0.56	
	Good ^c	3.63 \pm 0.57		1.31 \pm 0.31		2.32 \pm 0.56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	Employment ^a	3.48 \pm 0.45	11.44(<.001) *b>d c>d	1.45 \pm 0.36	7.95(<.001) *a>b d>b	2.27 \pm 0.53	4.44(.004) *c>a c>d
	Aptitude ^b	3.70 \pm 0.53		1.29 \pm 0.29		2.30 \pm 0.63	
	Valuable job ^c	3.70 \pm 0.58		1.39 \pm 0.38		2.56 \pm 0.44	
	Stable job ^d	3.29 \pm 0.51		1.57 \pm 0.41		2.24 \pm 0.58	
Major satisfaction at enrollment	Dissatisfaction ^a	3.19 \pm 0.62	18.37(<.001) *c>a c>b	1.60 \pm 0.37	7.43(.001) *a>c b>c	2.05 \pm 0.53	7.40(.001) *c>a c>b
	Moderate ^b	3.39 \pm 0.43		1.48 \pm 0.38		2.24 \pm 0.53	
	Satisfaction ^c	3.68 \pm 0.53		1.36 \pm 0.36		2.42 \pm 0.56	
Major satisfaction at present	Dissatisfaction ^a	3.11 \pm 0.58	23.27(<.001) *c>a c>b	1.63 \pm 0.34	11.60(<.001) *a>c b>c	2.04 \pm 0.65	5.21(.006) *c>a
	Moderate ^b	3.38 \pm 0.43		1.51 \pm 0.41		2.29 \pm 0.50	
	Satisfaction ^c	3.68 \pm 0.52		1.35 \pm 0.34		2.38 \pm 0.57	

* Scheffe test

건강상태($F=5.32, p=.004$), 간호학과 지원동기($F=11.44, p<.001$), 입학 시 전공 만족도($F=18.37, p<.001$), 현재 전공 만족도($F=23.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에서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에 맞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응답한 경우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한 경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년, 경제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학년($F=4.47, p=.004$), 건강상태($F=12.47,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7.95, p<.001$), 입학 시 전공 만족도($F=7.43, p<.001$), 현재 전공 만족도($F=11.6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서 3학년인 경우가 1학년과 2학년인 경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적성에 맞은 경우가 취업이 유리해서와 안정적인 직업인 경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한 경우가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경제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학년($F=8.25, p<.001$), 경제상태($F=3.25, p=.040$), 간호학과 지원동기($F=4.44, p=.004$), 입학 시 전공 만족도($F=7.40, p=.001$), 현재 전공 만족도($F=5.21, p=.00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인 경우가 1학년과 2학년인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였으며, 경제상태에서 중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응답한 경우가 취업이 유리하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을 잘하였고, 입학 시 전공 만족도와 현재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한 경우가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r=-.36,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r=.1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Academic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320$)

Variable	Job-seeking stress $r(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Academic self-efficacy	-.36(<.001)	.29(<.001)
Job-seeking stress	1	.19(.001)

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5).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결과 2.12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가 0.18~0.9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확대지수(VIF)도 1.11~5.3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경제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입학 시 전공 만족도를 포함시키고,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경제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입학 시 전공 만족도, 현재 전공 만족도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진로준비행동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0.40, p<.001$). 진로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 320)

variable	B	SE	β	t	p	VIF	Adj. R ²	F(p)
Constant	-.25	0.27		-0.93	.352			
Grade(2nd)	.01	0.07	0.01	0.15	.879	1.46		
Grade(3rd)	.25	0.08	0.18	3.20	.002	1.47		
Grade(4th)	.28	0.08	0.21	3.63	<.001	1.48		
Economic status(High)	.06	0.22	0.01	0.28	.783	1.11		
Economic status(Middle)	.12	0.07	0.09	1.85	.066	1.17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Employment)	-.02	0.07	-0.02	-0.31	.759	1.74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Aptitude)	-.05	0.08	-0.04	-0.56	.578	1.94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Valuable job)	.13	0.09	0.09	1.41	.161	1.66	.293	10.40 (<.001)
Major satisfaction at enrollment(Moderate)	.08	0.12	0.07	0.70	.486	4.74		
Major satisfaction at enrollment(Satisfaction)	.28	0.12	0.25	2.34	.020	5.31		
Major satisfaction at present(Moderate)	.18	0.11	0.15	1.60	.111	4.11		
Major satisfaction at present(Satisfaction)	.12	0.12	0.11	1.07	.288	4.67		
Academic self-efficacy	.37	0.06	0.36	6.49	<.001	1.35		
Job-seeking stress	.53	0.08	0.35	6.68	<.001	1.26		

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은 학년(3학년, 4학년), 입학 시 전공만족도(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로 이들 변수는 진로준비행동을 29.3% 예측 설명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준 예측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0.36$, $p<.001$), 취업스트레스($\beta=0.35$, $p<.001$), 입학 시 전공 만족도(만족)($\beta=0.25$, $p=.020$), 학년(4학년)($\beta=0.21$, $p<.001$), 학년(3학년)($\beta=0.18$, $p=.002$)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

으로 한 Jung과 Jeong[7]의 연구에서는 3.64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6]의 연구에서는 3.61점보다 낮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취업스트레스는 3점 만점에 1.4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Yeom과 Seong[15] 연구의 1.5점, 도구가 달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했을 때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Jung[24] 연구의 1.5점(5점 만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Song과 Lim[18] 연구의 1.5점(5점 만점)보다 낮은 결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e 등[25] 연구의 1.4점(4점 만점)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취업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므로[26]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를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32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졸업학년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ong과 Lim[18]의 연구에서는 2.71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6]의 연구에서는 2.68점보다 낮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졸업학년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이므로 진로준비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진로를 위한 준비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Song과 Lim[18]의 연구와 Park과 Kim[6]의 연구대상자는 졸업이 가까운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제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추후 학년을 구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건강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입학 시 전공 만족도, 현재 전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고 가치 있는 직업인 학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6-10]들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학업능력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학년, 건강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입학 시 전공 만족도, 현재 전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스트레스는 3학년 학생,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취업이 유리해서인 학생, 현재 전공에 만족도가 낮은 학생에서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Yeom과 Seong[15], Kim과 Lee[2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낮아지므로[24] 교수자는 학생 개인의 취업스트레스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인 맞춤형 취업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취업 코칭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는 학

년, 경제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입학 시 전공 만족도, 현재 전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은 4학년 학생, 경제상태가 ‘중’인 학생,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답한 학생, 입학 당시 전공 및 현재 전공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과 Kim[6], Moon과 Kim[27], Song과 Lim[18], Seong 등[2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ark과 Kim[6]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잘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Song과 Lim[18]의 연구에서는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주어진 과제를 자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졸업 후 자신의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스트레스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3학년, 4학년), 입학 시 전공만족도(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진로준비행동을 2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과 Kim[6], Song과 Lim[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매개변인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간호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분야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학년(3학년, 4학년), 입학 시 전공만족도(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중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하는 가장 큰 예측변인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취업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고, 추후 전문 간호사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훌륭한 임상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체결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후속연구와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im MA, Lim JY, Kim SY, KIM EJ, Lee JE, Ko YK.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4;13(4):383-391.
2.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62-71.
3. Lee SG, Lee JK.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8;21(3):1-25.
4.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5. Kim AY, Park I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01;39(1):95-123.
6. Park HH, Kim SY.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6;10(6):369-378.
7. Jung MR,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8;18(6):414-423.
8. Choi SH, Byun EK.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4):2303-2313.

9. Jeon HS.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2):213-221.
10. Kim YH.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1):104-113.
11. Cha MH, Lee JA.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fi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adjust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2; 31(4):227-243.
12. Kim BW.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13. Noh GO, Im YS.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19(3):1655-1668.
14. Cho YS, Kang YS. The mediation effects of anxiety sensitivit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5;16(4):359-375.
15. Yeom EY, Seong JA. The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job-seeking stress, self control on test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16;17(2): 57-69.
16. Cho HC.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013;24(1):157-184.
17. Kim YJ.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8;2(2):33-44.
18. Song HS, Lim SH.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17(4):21-36.
19. Hwang WH, Bae KE.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and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7;18(3):1237-1258.
20. Kyoung HK.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8;18(3):399-408.
21. Seong JA, Bang SY, Kim SY.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012;2(2):29-38.
22. Jang TJ, Moon MK.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6;22(4):344-352.
23. Whang SW.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1998.
24. Choi HJ, Jung KI.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8;24(1):61-72.
25. Choe MH, Kim JH, Nam ES, Lee YM, Hwang JH, Lee MK, et al.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5;24(2):122-131.
26. Kim SH, Lee SH.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15;27(1):63-72.
27. Moon MK, Kim S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7;42(2):162-169.